

한·중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대조 연구*

- 표현론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마군몽**

목 차

1. 머리말
2. 장소 개념의 하위분류 및 표시 방법
 - 1) 장소 개념의 하위분류
 - 2) 장소 표시 방법들
3. 한·중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 1) 한국어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 2) 중국어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4. 한·중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대조
 - 1) 한·중 출발지 표시 방법 대조
 - 2) 한·중 경유지 표시 방법 대조
 - 3) 한·중 목적지 표시 방법 대조
 - 4) 소결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표현론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태적 장소 개념이 표시되는 방법을 비교·대조한 글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의 하위분류는 보다 세밀하게 구분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소의 3차적 구분 장소 개념은 [공간 변화] 여부에 따라 정태적 장소와 동태적 장소로 구분

* 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김민국 교수님과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된다. 그중 동태적 장소는 [방향]에 의해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로 세분되고, 마지막으로 접경 개념을 첨가하여 3차적으로 세분된다. 둘째, 이와 같이 구분된 출발지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접경을 함의하는 출발지는 후치사 ‘-에서’가, 그러한 함의가 없는 출발지는 후치사 ‘-로부터’가 담당한다. 중국어에서는 출발지는 접경 개념과 상관없이 전치사 ‘從-’이 담당한다. 셋째, 한국어에서 접경을 함의하는 목적지 접경은 후치사 ‘-에’로 표시되고 접경 함의가 없는 목적지 방향은 후치사 ‘-로’로 표시한다. 중국어에서 목적지 접경은 전치사 ‘到-’로 표시되고 목적지 방향은 ‘向-’로 표시된다. 넷째, 경유지에 대해서는 한국어는 목적지 방향을 가리키는 후치사 ‘-로’가 경유지를 표시하고 중국어는 출발지를 가리키는 전치사 ‘從-’이 경유지를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태적 장소를 표시하는 방법들을 의미지도(semantic map)로 표현함으로써 이들 간의 의미관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표현론적 접근법, 동태적 장소, 방향, 접경, 의미지도, 한국어, 중국어.

1. 머리말

‘장소’는 인간의 인지 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인간의 인지 대상이 되는 사물은 어떤 장소에 놓여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임동훈 2017: 102). 또한 장소는 인간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일종이다. 범언어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언어 요소는 다른 의미 요소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주제로 폭넓게 고찰되어 왔다.

장소는 장소의 변화 여부에 따라 ‘정태적 장소’와 ‘동태적 장소’로 나눌 수 있다(Talmy 1985).¹⁾ ‘동태적 장소’에 대한 한·중 대조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해석론적 접근법에서 장소를 분석하는 관점과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표현론적 접근법을 통해서 양 언어를 분석하는 논의는 미진한 상황

1) 후술하겠지만 Talmy(1985)에서는 장소의 하위분류에 대해 ‘kinetic location(동태적 장소)’와 ‘static location(정태적 장소)’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기하였다.

이다.²⁾

표현론적 접근법은 인간 언어의 보편성 탐구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어떤 개념에 대해 사고를 언어화하는 과정이다(Štekauer 1998, 2001). 표현론적 접근법에 기반해 다양한 언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호(형식)’보다는 ‘개념/의미(기능)’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 형식이 표현하는 개념의 의미·화용적(話用的) 속성, 널리 알려진, 인간에 대한 일반적 사실 등을 통해 언어 사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특정 언어 이론이나 언어 모형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설명력을 얻을 수 있다(김민국 2017: 329). 예컨대, ‘처격 조사’를 범언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일부 언어에서 한정되어 나타나는 형식적 표지에 주목한다면, 중국어는 연구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문법 현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개념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를 분석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동일한 개념으로부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확인되는 표시 방법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언어 대조를 분석하기에 보다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처소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의 처소 개사가 각각 구조화된 방식과 의미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다. 본고의 목적은 ‘장소’라는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 방식을 분석하고 다양한 언어에서 장소에 대응하는 표시 방법을 밝히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표현론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가. 기호→개념/의미: 해석론적 접근법(semasiological approach)

나. 개념/의미→기호/표시:표현론적 접근법(onomasiological approach)³⁾

2) 언어학계에서는 해석론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형식을 분석하고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문법 표현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해석론적 접근법은 문법 기술에 있어서 절대적인 방법론이다. 하지만 표현론적 접근법은 범언어적으로 언어 기술에 있어 개념이나 기능의 표시 방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론적 접근법보다 더 유용하다(저자정보 노출로 편집위원회에서 삭제).

3) ‘onomasiological approach’에 대한 번역은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김민국(2017)을 따라 ‘표현론적 접근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표현론적 접근법을 통해 장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한·중 대조 연구로는 왕난난(2017)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간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나열한 것에 그쳤다. 더불어 동태적 장소에 관한 공간 관계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방법이 출현했을 때, 그 출현 원인 혹은 방법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차후 장소에 대한 하위분류를 보다 구조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장소의 하위분류 기준과 표시 방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표현론적 접근법을 통해 동태적 장소의 각 하위분류가 양 언어에서 표시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들 간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장소의 하위분류 및 표시 방법

1) 장소의 하위분류

장소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의미가 모여서 이루어진 의미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성분분석을 통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성분을 탐구하고 조직하여 장소의 하위분류를 밝히고자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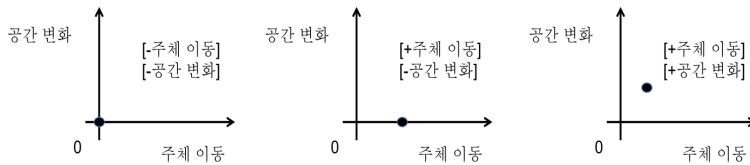
우선, 장소를 논의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장소에 차지하는 주체와 그 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주체는 정지 상태 또는 이동 상태로 공간에 존재한다. 그리고 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변화 역시 중심적인 요소이다. 장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성분은 바로 주체 이동과 공간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

4) 윤평현(2021: 74)은 단어의 의미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의미성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성분을 발견하고 조직하여 어휘의 의미를 규명하고 자 하는 방법론을 성분분석이라고 한다.

다. 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성분은 [±주체 이동], [±공간 변화] 두 가지로 대별되며 의미성분 조합은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 (2) 장소: [-주체 이동][-공간 변화], *[-주체 이동][+공간 변화]
 [+주체 이동][-공간 변화], [+주체 이동][+공간 변화]

그러나 [-주체 이동][+공간 변화]와 같이 주체가 이동하지 않는데 장소 변화가 있는 경우는 사람의 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체 이동][-공간 변화], [+주체 이동][-공간 변화], 그리고 [+주체 이동][+공간 변화] 세 가지만 존재한다. 좌표축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체 이동과 공간 변화의 좌표축

주체 이동과 공간 변화 간의 상호적용에 의해 크게 정태(靜態)와 동태(動態) 관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태는 주체가 정지 상태로 이동하지 않고 공간 변화가 없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체가 이동하지만 공간 변화가 없는 것 역시 해당한다. 동태는 주체가 이동하면서 공간 변화 또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의 제1차적 구분은 '정태적 장소'와 '동태적 장소'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소의 제1차적 구분

- 가. 정태적 장소: [-공간 변화]
 나. 동태적 장소: [+공간 변화]

주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동태적 장소는 [+주체 이동][+공간 변화] 의미성분으로 구성된다. 동태적 장소에 방향 개념을 부가하여 세부적인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다가감(rapprochement)’과 ‘멀어짐(éloignement)’이라는 방향(Hjelmslev 1935: 128)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동태적 장소는 ‘출발지[+from]’, ‘경유지[+from, +to]’, ‘목적지[+to]’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임동훈 2017).



<그림 2>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의 관계

이를 도식화하면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의 관계는 다음 <그림 3>으로 이해될 수 있다⁵⁾. 그래서 출발지는 [+주체 이동], [+공간 변화]와 [+멀어짐]과 같은 의미성분을 가지고 있고 목적지는 [+주체 이동], [+공간 변화]와 [+다가감]과 같은 의미성분을 가지고 있다. 경유지는 [+주체 이동], [+공간 변화], [+다가감], [+멀어짐]과 같은 의미성분을 가진다.

(4) 동태적 장소를 중심으로 본 장소의 제2차적 구분

- 가. 출발지: [+멀어짐]
- 나. 경유지: [+다가감][+멀어짐]
- 다. 목적지: [+다가감]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장소에 대해 대부분 2차적 하위분류까지만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3차적인 구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고에서 그 기준으로 주목하는 개념은 ‘경계’이다. 인간은

5) 개념적 본질이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며 우리의 인지 구조 안에서 도식화할 수 있다. 도식화(schematization, 圖式化)란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 등 추상적인 개념을 그림이나 양식으로 만드는 것이다(최예빈·정해권·홍혜란 2017). 장소의 하위분류를 더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 도식을 사용한다.

알고 있는 장소를 주변의 다른 사물과 구분하기 위해 ‘경계’라는 의미를 첨가하여 장소를 인지한다.

Hjelmslev(1935)는 ‘경계 닿음(coherence)’와 ‘경계 닿지 않음(incoherence)’이라는 개념을 첨가하여 3차적 장소를 구분한다(Blake 1994: 38). ‘경계 닿음’은 ‘접경(接境)’과 ‘진출(進出)’과 관련된 개념으로, 주체가 경계 안으로 들어가거나 경계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경계 닿지 않음’은 ‘근접(近接)’과 관련된 개념으로, 주체가 장소와 접촉하지 않고 장소의 방향으로 가거나 장소의 방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⁶⁾

그래서 출발지는 출발지 접경과 출발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목적지는 목적지 접경과 목적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경유지는 주체가 경계 안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경계 안으로부터 나가는 장소이므로 경계 닿음의 함의가 없다. 핀란드어에서는 내부탈격 ‘-sta(from inside)’와 내부향격 ‘-lta(from outside)’는 출발지 접경[경계 닿음]과 출발지 방향[경계 닿지 않음]을 구분한다. 또한 영어에서는 전치사 ‘into, to’를 통해 ‘목적지 접경’과 ‘목적지 방향’을 나타낸다.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도 [경계 닿음] 여부에 의해 제3차적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경계 닿음]은 의미상의 개념이므로 내부, 상/위 등을 가리키는 위상 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임동훈 2017: 106). 이에 따라 동태적 장소를 중심으로 제3차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5) 동태적 장소를 중심으로 본 장소의 제3차적 구분

가. 출발지 접경 [+경계 닿음] / 출발지 방향 [-경계 닿음]

나. 목적지 접경 [+경계 닿음] / 목적지 방향 [-경계 닿음]

다. 경유지

6) 출발지와 목적지는 경계가 있는 확장된 장소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 개념을 바탕으로 경계 건너기가 상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계 닿음] 함의가 있는 출발지 접경은 경계 밖으로 건너기와 관련된다. [경계 닿음] 함의가 없는 출발지 방향은 출발지 경계 건너기와 관련되지 않고 이동체가 출발지를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기 시작하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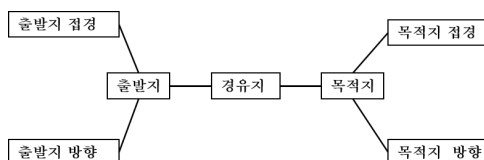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장소의 제1차적 구분이 정태적 장소와 동태적 장소로, 동태적 장소는 다시 2차적으로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로 나뉠 수 있다. 이에 [경계 닿음]을 부가하여 3차적 구분을 한다. 동태적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한 3차적인 장소의 하위분류는 다음 <표 1>와 같다.

	제1차적 구분	제2차적 구분	제3차적 구분	의미성분
장소	정태적 장소			
	동태적 장소	출발지	출발지 접경	[+공간 변화][+떨어짐][+경계 닿음]
			출발지 방향	[+공간 변화][+떨어짐][-경계 닿음]
		경유지		[+공간 변화][+다가감][+떨어짐]
		목적지	목적지 접경	[+공간 변화][+다가감][+경계 닿음]
			목적지 방향	[+공간 변화][+다가감][-경계 닿음]

<표 1>

동태적 장소의 개념 지도⁷⁾를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각 개념의 보편적인 다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의 관계의 보편성에 대해 제2차적 구분인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에 주목하면, [출발지]와 [경유지] 사이의 다의(多義)나 [경유지]와 [목적지] 사이의 다의(多義)는 출현 빈도가 높지만,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는 다의(多義)가 나타나는 언어는 거의 없다(박진호 2012: 491). 그리고 장소에 대한 3차적인 하위분류에 따라서 동태적 장소의 개념지도는 다음 <그림 3>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서로 관련된 개념들은 하나의 개념 공간(conceptual space)을 형성한다. 두 개념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기호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개념공간의 내적 구조, 즉 개념 간의 관련 양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개념지도(conceptual map)라 부를 수 있다(박진호 2012: 461).



<그림 3> 동태적 장소의 개념지도

2) 장소의 표시 방법들

장소는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장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언어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발달해 있는 편이며 대부분의 언어에서 각자의 표시 방법이 존재한다. 崔希亮(2002: 4)은 각 언어의 장소 표시 방법이 서로 다른 수단으로 표현되며, 이는 크게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각 수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6)과 같다.

(6) 장소의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 (崔希亮 2002: 4)

가. 문법적 수단: 부치사(전치사/후치사), 격조사, 개사, 접사(접두사/접미사), 문장 성분 어순 등

나. 어휘적 수단: 처소 동사(구), 공간 개념어, 공간 지시사, 처소 부사, 처소 명사 등

崔希亮(2002)의 논의를 참조했을 때 장소 표시 방법의 유형은 언어학의 연구 분야에 따라 문법적 수단(형태적 방법, 통사적 방법⁸⁾), 어휘적 수단, 그리고 복합적 수단⁹⁾ 3가지로 대별된다.

8) 崔希亮(2002)은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에 속하는 대표적인 언어들을 분석하여 다른 언어의 장소 논항이 서술어에 앞뒤에 나타나는 위치는 전치(前置), 후치(後置), 전후치(前後置)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9) 주목할 점은 특정 언어가 장소를 표시할 때 형태적인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어휘적인 표시 방법으로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언어에서는 두 가

- (7) 가. 문법적 수단 a. 형태적 표시 방법 b. 통사적 표시 방법
 나. 어휘적 수단
 다. 복합적 수단 a. 형태적 표시 방법+어휘적 표시 방법
 b. 형태적 표시 방법+통사적 표시 방법
 c. *어휘적 표시 방법+통사적 표시 방법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은 그 수가 상당히 많고 열린 집합을 이룬다. 그러나 장소를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은 하나의 언어 내에서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언어들을 검토해보면, 문법적 수단을 통해 장소를 구별하여 나타내는 방식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그중 형태적 표시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분명하면서도 소수의 패턴만이 빈번히 나타난다(박진호 2011: 291). 일반 언어학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형태적 요소는 장소 명사(구)의 위치에 따라 전치사(preposition)와 후치사(postposition)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⁰⁾ 이런 부치사(adpositon)는 타 언어에서는 개사, 격, 격조사, 접사 등으로 명명되어 있다. 우선 영어와 터키어의 형태적인 장소 표시 방법인 전치사와 후치사를 살펴본다.

- (8) 장소를 표시하는 영어 전치사
 가. 사물 이동의 출발지, 종점, 방향 지시의 점: from, off, out of, to
 나. 경로 또는 이동 궤도: past, by, across, through, along
- (9) 장소를 표시하는 터키어 후치사 (남승호 2009: 476)
- | | | |
|--------|---------|---------|
| 가. ben | park-a | kostum. |
| I | park-to | run |

지 방법이 동시에 활용되는 것을 발견한다.

10) 부치사는 관련어의 앞에 위치하느냐, 뒤에 위치하느냐, 관련어를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 전치사, 후치사, 환치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부치사는 명사 앞, 뒤에 분리되어 불연속적인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유형론에서는 이런 부치사를 '환치사'라고 한다.

I ran to the park.

- 나. o.a dam park-tan kostu.
 he park-from ran
 He ran from the park.

주지하다시피 영어에서는 전치사 ‘to’, ‘from’, ‘through’ 등을 통해 장소가 표시된다. 터키어는 예문 (9)을 통해 알 수 있듯 후치사 ‘-a’를 통해서 목적지 ‘공원’을 표시하고, 후치사 ‘-tan’을 통해 출발지 ‘공원’을 표시한다. 장소를 나타내는 형태적인 표시 방법에 대해 범언어적으로 논하면 한국어에서는 장소 명사(구) 뒤에 후치사(격 조사/복합조사)가 결합하고 중국어에서는 장소 명사(구) 앞에 전치사(개사)가 결합한다.¹¹⁾

- (10) 가. 후치사(격 조사): -에, -(으)로, -에서
 후치사(복합조사): -(으)로부터
 나. 전치사(개사): ‘在-, 從-, 到-, 向-, 沿-’ 등

3. 한·중 동태적 장소의 표시 방법

1) 한국어 동태적 장소의 표시 방법

11) 중국어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문법 방식은 개사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격조사를 통해 장소를 표시한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명사에 선행하는 개사는 전치사에 속하고, 명사에 후행하는 격조사는 후치사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격조사와 격조사가 서로 결합하여 ‘학교로부터’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 중국어의 개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자를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해 전치사(개사)와 전후사(격조사)와 같은 표현 방식을 취한다. 개사와 격조사의 구체적인 차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① 한국어 출발지 표시 방법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후치사(격조사) ‘-에서’에 의해 출발지를 표시한다고 한다(남승호 2009, 임동훈 2017 등).

- (11) 가. 영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 어귀까지 달리기를 했다.
나. 나는 지금 학교에서 곧 오는 길이야. (왕난난 2017: 169)

(11)의 예는 이동체가 ‘학교 운동장, 학교’라는 출발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체가 출발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위치가 변화한 것이다. (11)에서는 후치사(격조사) ‘-에서’에 의해 출발지를 표시한다. 그 중에 (11가)의 장소 명사 ‘학교 운동장’은 후치사(격조사) ‘-까지’로 표시된 목적지 ‘마을 어귀’가 없으면 출발지로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 (12) 가. 철수가 집부터 시장까지 친구를 데리고 갔다.
나. 영희는 광주로부터 전학을 왔다. (김진형 2000: 70)

그러나 한국어에서 출발지를 표시하는 방식에는 순수한 후치사(격조사) ‘-에서’뿐만 아니라 특수조사로 일컬어지는 ‘-(으)로부터’도 포함된다. (12)는 각각 후치사 ‘-부터, -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집, 광주’라는 출발지를 표시한다. (12가)는 후치사(보조사) ‘-부터’가 목적지의 끝점을 나타내는 후치사(보조사) ‘-까지’와 같이 짝을 이뤄 나타내는데, 이들은 항상 출발지와 목적지 뒤에 붙이지만 중간 거리나 범위를 역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2나)는 방향과 관련한 후치사 ‘-로’에 범위의 기점’을 나타내는 부터’가 결합한 ‘-로부터’는 출발지 방향 ‘광주’를 표시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어에서는 아래 (13)과 같이 후치사(격조사) ‘-에서’와 후치

사(합성조사) ‘-로부터’라는 두 가지의 형태적 방법을 취하여 출발지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발지를 표시하는 후치사 ‘-에서’를 통해서도 경계 건너기의 의미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지역 내부나 공간 내부를 가리키는 ‘서’가 ‘에’에 결합한 후치사(격조사) ‘-에서’가 사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발지 접경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향과 관련한 후치사 ‘-로’에 범위의 기점을 나타내는 ‘-부터’가 결합한 ‘-로부터’는 경계 닿음 함의가 없는 출발지 방향을 표시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출발지 접경과 출발지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¹²⁾

- (13) 출발지 접경: 후치사(격조사) ‘-에서’,
출발지 방향: 후치사(복합조사) ‘-(으)로부터’

② 한국어 경유지 표시 방법

현대 한국어에서는 경유지를 형태적 방법인 후치사(격조사) ‘-(으)로’를 통해 표시한다.

- (14) 가. 서울에서 대구로 해서 부산에 갔다.
나. 철수는 지름길로 약속 장소에 갔다. (임동훈 2017: 115)

위 (14)에서 장소 명사 ‘대구’, ‘지름길’은 모두 후치사(격조사) ‘-(으)로’의

12) 심사자 한 분은 출발지에 관한 [±경계 닿음] 구분은 그 검증이 분명하지 않고 출발지 자체가 [-경계 닿음]이 가능할 수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장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분석하고 출발지의 [±경계 닿음]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핀란드어에서는 [±경계 닿음] 출발지 구분이 내부탈격 ‘-sta(from inside)’와 탈격 ‘-lta(from outside)’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방향을 표시하는 보조사 ‘-로’와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로부터’가 경계 닿음 함의가 없는 출발지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도움을 받아 현실 세계의 장소 특성을 제거한 후 경유지로 표시된다. 즉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격조사) ‘-(으)로’를 통해 경유지 본연의 특성과 무관하게 경유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유지를 표시할 때 ‘도착하다’와 같은 도착성이나 귀착점을 상징할 수 있는 서술어와 동시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유지 표시 방법은 다음 (15)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5) 한국어 경유지 표시 방법: 후치사(격조사) ‘-(으)로’

③ 한국어 목적지 표시 방법

목적지는 개념상 존재하는 경계 건너기와 관련되는데, 이는 [경계 닿음] 의미를 함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격조사) ‘-로’와 ‘-에’로 목적지를 표시하는데, [±경계 닿음] 개념을 도입하여 이런 표시 방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16) 가. 나는 뒷동산의 그 밤나무로 갔다.

나. *나는 뒷동산의 그 밤나무에 갔다. (홍윤표 1978: 116)

(16가)에서는 장소 명사 ‘그 밤나무’가 후치사(격조사) ‘-로’를 통해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6나)와 같이 장소 명사 ‘밤나무’ 뒤에 후치사(격조사) ‘-에’는 나타날 수 없다. 이에 대해 홍윤표(1978)는 장소 명사 ‘밤나무’가 확장되어 일정한 면적이 있는 장소로 보일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후치사(격조사) ‘-로’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밤나무’가 확장되지 못하는 장소라기보다 이동체가 경계 닿을 수 없는 특질을 가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치사(격조사) ‘-(으)로’는 목적지 방향을 표시한다.

- (17) 가. 영미가 학교로 갔다.
나. 영미가 학교에 갔다.

한국어에서 목적지를 표시하는 형태적인 방법 ‘-(으)로’, ‘-에’가 [경계 닿음] 여부를 통해 의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7가)에서는 후치사(격조사) ‘-(으)로’를 통해 이동체가 목적지인 ‘학교’와 접촉하지 않고 있어 목적지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17나)는 ‘학교에 간다’는 이동체가 이동 동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동체가 어떤 곳에서 ‘학교’라는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이루는 것이다.¹³⁾ 이에 따라 후치사(격조사) ‘-에’가 목적지 접경을 나타낸다. 종합하자면, 한국어에서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18)와 같은 형태적인 방법이 존재하며, 후치사(격조사) ‘-에’는 목적지 접경을, 후치사(격조사) ‘-(으)로’가 목적지 방향을 표시한다.

- (18) 가. 목적지 접경: 후치사(격조사) ‘-에’
나. 목적지 방향: 후치사(격조사) ‘-(으)로’

2) 중국어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① 중국어 출발지 표시 방법

장소 명사 뒤에 후치사를 붙이고 출발지를 표시하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

13) 목적지의 표시 방법 중에 ‘후치사(복합 조사) ‘-에로’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에로’가 격조사 ‘에’가 위치를 나타낼 때 방향성을 주기 위하여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한 조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에로’는 사용 빈도가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 조사 ‘-(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어에서 목적지를 표시하는 형태적인 방법으로는 조사 ‘-(으)로’가 가장 일반적이다.

어에서는 출발지의 표지를 주로 전치사(개사) ‘從-’이 담당한다.¹⁴⁾

(19) 가. 他從公園跑了. (그는 공원에서 뛰어갔다.)

나. 我從韓國回來了. (나는 한국에서 돌아왔다.)

(20) 從我家到學校步行10分鐘的路程. (우리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이다.)

(19)는 장소 명사 ‘公園’과 ‘韓國’이 전치사(개사) ‘從-’에 의해 출발지로 표시된다. (20)에서는 출발지를 표시하는 전치사(개사) ‘從-’과 목적지를 표시하는 ‘到-’가 문장에서 함께 나타난다. 두 종류의 전치사(개사)가 ‘從-…到-’와 같은 구조적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중국어에서 출발지는 [±경계 닿음]의 함의가 없어서 모두 전치사(개사) ‘從-’이 담당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출발지를 표시할 때 일반 장소와 사물 장소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는데, 방위 명사의 전환성에 의해 사물 장소가 일반 장소로 변환된다. 종합하자면,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개사) ‘從-’으로 출발지를 표시한다.

(21) 중국어 출발지 표시 방법: 전치사(개사) ‘從-’

② 중국어 경유지 표시 방법

현대 중국어에서는 형태적인 방법인 전치사(개사) ‘從-’로 [경유지]를 표시한다.

(22) 가. 新娘從小門進來了. (신부가 작은 문으로 들어왔다.)

14) 荊國芳(2016)은 출발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전치사(개사) ‘自’, ‘於’, ‘以’, ‘打’ 등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들은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빈도가 낮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전치사(개사) ‘自’, ‘於’, ‘以’, ‘打’를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나. 孩子們從公園門口走過. (아이들이 공원 입구를 걸어 지나가다.)

위 (22)에서 장소 명사 ‘小門’, ‘公園門口’는 전치사(개사) ‘從-’에 의해 경유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치사(개사) ‘從-’ 외에 ‘沿-’ 또한 존재한다.

(23) 火車沿海岸線行駛. (기차는 해안선을 따라 달린다.)

전치사(개사) ‘沿-’는 주로 선을 내포하는 경유지, 즉 경로를 표시한다. (23)에서는 장소 명사 ‘海岸線’은 일반인지에 의해 선형 장소로 인식되어 경유지로 표시하려면 전치사(개사) ‘沿-’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전치사(개사) ‘沿-’은 선형 경유지, 즉 경로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전치사(개사) ‘沿-’의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지적할 수 있다.¹⁵⁾

중국어에서는 경유지가 일반 장소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물이 경유지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리하여 중국어에서는 경유지를 표시할 때 사물을 일반 장소로 전환하는 방위 명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4) 중국어 경유지 표시 방법: 전치사(개사) ‘從-’

③ 중국어 목적지 표시 방법

중국어에서 목적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전치사(개사) ‘向-’, ‘到-’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용법이 가장 복잡한 전치사(개사) ‘向-’을 살펴보자.

15) 중국어에서는 경유지를 표시하는 형태적 방법은 ‘由’와 ‘經(過)’ 등도 있다. 그러나 ‘由’는 문어체로 많이 쓰이며, 방식이나 출발지를 표시하는데 더 많이 사용된다. 또한 ‘經(過)’의 품사에 대해 동사, 명사, 전치사(개사)로 바라보는 논의가 모두 있다. ‘經(過)’은 경유지를 표시하는 전치사(개사)보다 동사의 용법이 보다 기본적으로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치사 ‘從-’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 (25) 가. 這輛車開向上海. (이 차는 상하이로 향해 간다.)
 나. 這輛車向上海開. (이 차는 상하이로 향해 간다.)

(25가)에서 장소 명사 ‘上海’는 전치사 ‘向-’을 통해 [-경계 닿음], 목적지 방향을 표시한다. 즉 ‘상하이’는 이동체 ‘차’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이지만 목적지와는 접촉하지 않는다. 이 때 전치사(개사) ‘向-’에 의해 목적지를 표시하려 한다면 장소 논항은 술어 뒤에 나타난다.

이와 달리 (25나)에서는 전치사(개사) ‘向-’이 장소 명사 ‘上海’가 결합하여 술어 앞에 위치하게 되면 단순히 방향을 표시한다(柯潤蘭 2003: 29). 이동체가 ‘上海’이라는 방향(direction)을 선정하고 ‘開(운전하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上海’가 ‘목적지’가 될 수 없다.¹⁶⁾

이에 따라 전치사(개사) ‘向-’이 행위가 끝나면서 도착할 목적지, 즉 목적지 방향을 표시할 때, 목적지 논항은 술어 뒤에 위치한다는 통사적(統辭的)인 위치 제한이 따른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전치사와 동사의 두 가지 품사적 특성을 모두 가지는 ‘到-’에 의해 공간 내부를 함의하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도 있다.

- (26) 가. 火車到站了. (기차가 역에 도착했다.)
 나. 我走到圖書館了. (나는 걸어서 도서관에 갔다.)
 我到圖書館借了書.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26)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명사 ‘站’과 ‘圖書館’은 모두 목적지를 나타낸다. 그런데 ‘到-’가 (26가)에서는 동사로 나타나고 있지만 (26나)와 (26다)에서는 전치사(개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⁷⁾ 동사/전치사(개사) ‘到-’는 이동체가

16) 柯潤蘭(2003)에서는 말뭉치에 의해 ‘向’과 ‘동, 서, 남, 북, 상, 하, 좌, 우’ 등 방향 명사가 결합하는 구조 [向+ 방향 명사]의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라서 구조 [向+ 방향 명사]는 대체로 서술어 앞에 나타난다. 이는 [向+ 장소 명사]가 서술어 앞에 나타나면 장소 명사가 단순히 방향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목적지와 접촉함과 동시에 ‘공간 내부’를 함의한다. 즉, 본고에서는 형태적인 방법인 전치사(개사) ‘到-’가 목적지 접경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6다)와 같이 동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 ‘到’를 통해 목적지인 ‘圖書館’의 [+ 경계 닿음]이라는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가령 ‘圖書館’은 ‘我’가 ‘圖書館’에 도착하여 ‘책을 빌리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이 때 어휘적 방법인 동사 ‘到-’와 형태적 방법인 전치사 ‘到-’는 모두 [+ 경계 닿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형태적 방법인 전치사(개사) ‘向-’이 목적지 방향을 표시하고 전치사(개사) ‘到-’가 목적지 접경을 표시한다.

(27) 가. 목적지 접경: 전치사(개사) ‘到-’

나. 목적지 방향: 전치사(개사) ‘向-’

4. 한·중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대조

1) 한·중 출발지 표시 방법 대조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서는 후치사 ‘-에서’를 통해 경계를 닿을 수 있는 출발지 접경을 표시하고, 후치사 ‘-로부터’를 통해 경계 닿음 함의가 없는 출발지 방향을 표시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개사) ‘從-’이 출발지

17) ‘到-’는 동사와 개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사 ‘到-’의 의미는 ‘도착하다’로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합성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동사가 점차 문법화되면서 개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 중국어에서는 ‘到-’의 두 가지 용법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崔希亮(2004)의 안을 따라 두 용법을 모두 인정하지만 상세한 설명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두고자 한다. ‘到-’가 문장 내에서 다른 서술어 없이 단독으로 나타나면 그 자체로 동사로 파악하며, 이동 동사 뒤에 결합하여 나타나면 동사가 아닌 전치사로 보고자 한다.

를 나타내고 경계 닿음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출발지 표시 방법을 바탕으로, 전술한 보편적 배열-개념지도를 적용해 출발지의 의미지도(semantic map)를 다음 표와 같이 그릴 수 있다.¹⁸⁾

출발지의 하위분류	출발지 표시 방법		출발지의 의미지도
	한국어	중국어	
출발지 접경	후치사 '-에서'	전치사 '從-'	
출발지 방향	후치사 '-로부터'		

<표 2>

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출발지를 표시하는 형태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에서는 후치사 '-에서'와 동사의 결합을 통해 출발지 접경을 표시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從-' 단독으로도 출발지를 표시할 수 있다.

(28) 가.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출발하기로 하였다.

(29) 가. * 我們打算早上從圖書館見面.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나. 我們打算早上從圖書館出發.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출발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형태적 방법 '-에서' 뒤에 동사 '만나다'와 동사 '출발하다'가

18) '개념지도'와 '의미지도'를 구분하지 않고 의미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남수경 2011)도 존재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능, 의미들의 보편적 배열을 설명하는 '개념지도'와 특정 언어, 특정 요소들의 경계를 설명하는 '의미지도'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출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정태적 장소와 출발지를 표시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형태적 방법 ‘從-’이 사용되면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둘째, 출발지 논항이 차지하는 통사적인 위치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워 통사적 위치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출발지 논항이 반드시 서술어 앞에 나타나야 한다. 위 (29)에서 출발지 논항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양 언어의 통사적인 제한을 설명할 수 있다. (30)처럼 한국어의 출발지 논항인 ‘광주로부터’와 ‘학교에서’는 통사적인 위치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국어의 출발지 논항 ‘公園’은 문장 서술어 앞에만 나타날 수 있고 뒤에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30) 가. 영희는 전학을 왔다, 광주로부터.

나. 나는 지금 곧 오는 길이야, 학교에서.

다. * 他跑出來了, 從公園. (그는 뛰어나갔다, 공원에서)

셋째, 출발지 논항이 사물명사인 경우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격 조사) ‘-에서’만 있으면 표현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개사) ‘從-’뿐만 아니라 방위 명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31) 가. 그는 가방(안)에서 지갑을 꺼냈다.

나. 他從包裹掏出了錢包.

한국어에서는 후치사 ‘-에서’에 의해 사물 장소 ‘가방’이 나타나지만, 중국어에서는 우선 방위 명사 ‘裏’를 통해 사물 장소를 일반 장소로 전환한 뒤 전치사 ‘從’과 결합하여 출발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한·중 목적지 표시 방법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양자 모두 [±경계 닿음] 개념을 도입하여 목적지를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격조사) ‘-에’로,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개사) ‘到-’로 목적지 접경을 표시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격조사) ‘-(으)로’로,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개사) ‘向-’으로 목적지 방향을 표시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목적지 하위분류 표시 방법에 기반해 다음 표와 같은 의미지도를 그릴 수 있다.

목적지의 하위분류	목적지 표시 방법		목적지의 의미지도
	한국어	중국어	
목적지 접경	후치사 ‘-에’	전치사 ‘到-’	
목적지 방향	후치사 ‘-(으)로’	전치사 ‘向-’	

〈표 3〉

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목적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목적지를 표시하는 통사적인 위치가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목적지+‘-에’/‘-(으)로’] 목적지 논항도 출발지 논항과 같이 문장에서 위치가 상당히 자유롭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목적지 접경을 표시하는 논항 [‘到-’+목적지]은 문장 서술어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목적지 방향을 표시하는 논항 [‘向-’+목적지]도 서술어 앞에 보다 많이 출현한다.

- (32) 가. 영미가 학교로 갔다.
 가. 영미가 갔다, 학교로.

- 나. 동생은 방금 집에 갔다.
 나. 동생은 방금 갔다, 집에.
 (33) 가. 這輛車開向上海. (이 차는 상하이로 향해 간다.)
 나. 這輛車向上海開. (이 차는 상하이로 간다.)
 다. 我走到圖書館了. (나는 도서관에 걸어갔다.)
 라. 我到圖書館借了書.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한국어에서는 위의 (32)를 통해 알 수 있듯 목적지 방향 논항 ‘학교로’와 목적지 접경 논항 ‘집에’의 위치가 상당히 자유롭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33가)와 같이 목적지 방향 논항 ‘向上海’가 반드시 서술어 뒤에 나타나야 하고 (33나)의 장소 논항 ‘向上海’가 서술어 앞에 출현하면 단순한 방향 논항이 된다. 이와 비교해 장소 논항 ‘到圖書館’은 (33다)와 (33라)와 같이 서술어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고 목적지 접경을 표시한다.

둘째, 형태적인 표시 방법 이외에 목적지를 표시할 때에는 한국어에서는 ‘목적성 장소명사-을/를 이동 동사’와 같은 구성에 의해, 중국어에서는 ‘이동 동사 + 목적성 장소명사’와 같은 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¹⁹⁾. 그리고 이러한 구성들은 형태적인 표시 방법보다 사용되는 빈도가 훨씬 높다.

- (34) 가. 학교를 가다 / 산을 오르다.
 나. 去學校 / 上山

셋째,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목적지 논항이 서술어 뒤에 나타나면 전치사 ‘到-’와 ‘向-’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많지 않고 ‘開, 走, 奔, 沖, 飛, 流, 飄, 滾, 轉, 倒, 駛, 通, 劃, 放, 堆’ 등 단음절 이동 동사에 한정된다(齊滬揚

19) 이동동사는 의미적 특성에 입각한 동사부류로, 행위자나 또는 대상의 물리적 공간상 위치의 변화로서의 이동을 의미하는 ‘가다, 오다, 빠지다, 옮기다’ 등의 동사를 모두 지칭한다(홍기선 1995).

2014). 하지만 중국어의 목적지 논항이 서술어 앞에 나타나면 이동 동사에 대한 음운의 제한이 없다.

3) 한·중 경유지 표시 방법 대조

마지막으로 한국어에서 경유지는 후치사(격조사) ‘-(으)로’로, 중국어에서 전치사(개사) ‘從-’로 표시된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경유지는 형태적인 표시 방법이 다른 동태적 장소의 표시 방법으로 표시된다. 한국어의 목적지 방향과 [경유지]는 모두 후치사(격조사) ‘-(으)로’로, 중국어의 [출발지]와 [경유지]는 모두 전치사 ‘cong(從)-’로 표시된다. 정리하면 다음 (35)과 같다.

(35) 가. 후치사 ‘-(으)로’가 표시하는 장소의 하위분류

[-경계 닿음]목적지, [경유지]

나. 전치사 ‘cong(從)-’가 표시하는 장소의 하위분류

[출발지], [경유지]

경유지	경유지 표시 방법		경유지의 의미지도
	한국어	중국어	
	후치사 ‘-(으)로’	전치사 ‘從-’	

<표 4>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격조사) ‘-(으)로’가 목적지 방향과 경유지를 동시에 표시하고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개사) ‘從-’가 출발지와 경유지를 함께 표시한다. 예를 들어 (36)에서는 후치사 ‘-(으)로’로 목적지 방향 ‘학교’와 경유지 ‘대

구'를 표시하고 (37)에서는 전치사 '從-'로 출발지와 경유지를 표시한다.

(36) 가. 군에 간 친구가 학교로 왔다. [목적지 방향]

나. 서울에서 대구로 해서 부산에 갔다.[경유지]

(37) 가. 列車員從火車上跳了下來(승무원이 기차에서 뛰어내렸다).[출발지]

나. 新娘從小門進來了(신부가 작은 문으로 들어왔다).[경유지]

한국어에서는 (36)처럼 같은 형태적 방법인 후치사(격조사) '-(으)로'가 선으로 보이는 경유지의 표시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전치사(개사) '從-' 이외에 형태적 방법인 전치사(개사) '沿-'가 선형의 경유지(경로)를 표시할 수 있다.

(38) 가. 그는 산길로 걸어간다.

나. 火車沿海岸線行駛. (기차는 해안선을 따라 달린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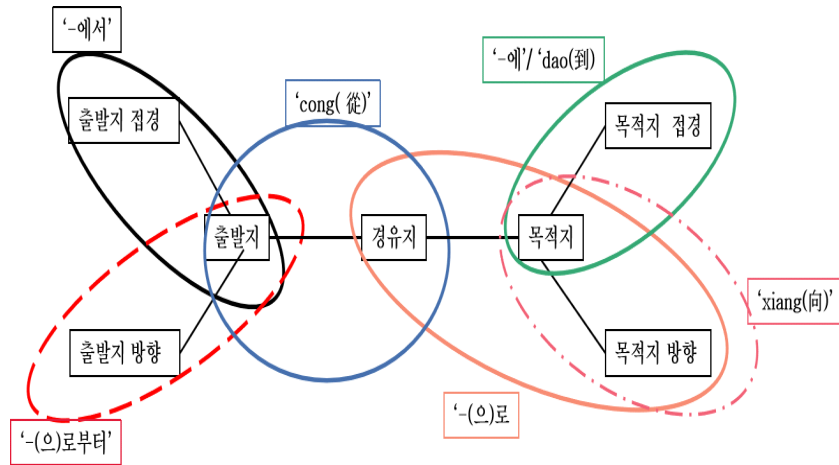
본장에서는 동태적 장소를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로 구별한 후 출발지와 목적지에 [±경계 닿음]이라는 개념을 첨가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시 방법들을 대조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표와 의미지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동태적 장소의 하위분류		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	
		한국어	중국어
출발지	출발지 접경	후치사 ‘-에서’	전치사 ‘從-’
	출발지 방향	후치사 ‘-(으)로부터’	
목적지	목적지 접경	후치사 ‘-에’	전치사 ‘到-’
	목적지 방향	후치사 ‘-(으)로’	전치사 ‘向-’
경유지			전치사 ‘從-’

〈표 5〉 한국어와 중국어 동태적 장소 하위분류 표시 방법

양 언어에서 동태적 장소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간취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①상이한 언어적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의 하위분류를 표시하는 것과 ②동일한 언어적 방법으로 다른 장소의 하위분류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한 의미 관계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지도²⁰⁾로 명실할 수 있다.

20) 의미지도는 항상 개념지도(conceptual map)와 같이 나타난다. 개념지도는 개념들 사이의 관련 양상을 시각화한 것을 일컫는다. 이 개념지도를 바탕그림으로 삼아 특정 언어에서 몇 개의 언어 요소가 개념들을 구분하거나 뭉뚱그려서 나타내는 양상, 즉 개념공간을 분할하는 양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당 언어의 의미지도(semantic ma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박진호 2012: 461).



5. 결론

본고에서는 먼저 동태적 장소의 하위분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장소의 3차적 하위분류를 바탕으로 동태적 장소의 하위분류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구현되는 형태적인 방법을 중점으로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의 하위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제1차적 구분에서 장소는 [공간 변화] 여부에 따라 정태적 장소와 동태적 장소로 대조된다. 제2차적 구분에서 동태적 장소는 주체의 이동 방향에 따라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로 세분된다. 여기서 동태적 장소의 하위분류인 출발지와 목적지에 제3차적 구분으로 경계 닿음 함의의 유무를 의미하는 접경 개념이 더해지면서 장소의 하위분류를 완성시킬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접경 개념이 도입되면서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에서 표출되는 공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제3차 구분 내에서 동태적 장소의 출발지

는 주체가 경계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출발지는 [출발지 접경]과 [출발지 방향]으로 구분되고 목적지는 [목적지 접경]과 [목적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한국어에서 경계 닿음 함의가 있는 [출발지 접경]은 후치사 ‘-에서’가, 그렇지 않은 [출발지 방향]은 후치사 ‘-(으)로부터’가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출발지는 경계 닿음과 상관없이 전치사 ‘從-’이 담당한다.

셋째, 목적지는 주체가 경계 밖으로부터 안으로 이동하는 장소이다. 한국어에서는 경계 닿음 함의가 있는 [목적지 접경]은 후치사 ‘-에’로 표시되고 경계 닿음 함의가 없는 [목적지 방향]은 후치사 ‘-(으)로’로 표시된다. 중국어에서는 경계 닿음 함의가 있는 [목적지 방향]은 전치사 ‘到-’로 표시되고, 그러한 함의가 없는 [목적지 방향]은 ‘向-’로 표시된다.

넷째, 경유지에서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경유지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쳐 지나가는 곳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경유지에 대한 인식 시점이 상이하다. 한국어에서는 후치사 ‘-(으)로’로 경유지를 표시하고 경유지와 목적지를 범주화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從-’로 경유지를 표시하고 경유지와 출발지를 범주화한다. 다만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沿-’을 통해 선형의 경유지를 표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동태적 장소와 관련되어 출발지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표시 방법을 확장하여 경유지를 표시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한국어에서는 [목적지 방향]과 [경유지]를 범주화하여 후치사 ‘-(으)로’로 표시하고, 중국어에서는 [출발지]와 [경유지]를 범주화하여 전치사 ‘從-’로 표시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의미 범주-동태적 장소 표시 방법들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 대조 분석을 시도한 것에 의미가 있다. 즉, 본고에서는 표현론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언어 속에서 장소의 어휘적 표시 방법 및 통사적 표시 방법을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반영된 인지 세계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구분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2015.
- 김민국, 「기능·유형 문법에 기반한 한국어 구문 연구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깊이 읽기-」, 『언어사실과 관점』 42, 2017: 323-365.
- 김진형, 「조사연속구성과 합성조사에 대하여」, 『형태론』 2(1), 2000: 59-72.
- 남승호, 「기점과 착점 논항의 통사: 의미 구조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언어학』 34, 3, 2009: 473-527.
- 노재민, 「공간어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마군몽, 「한중 장소 표시 방법 대조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박성수, 「장소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관계적 범동주의- 하나의 형식적 이론으로서 범동주의 옹호하기」, 『로컬리티 인문학』 21, 2019: 7-45.
- 박정구·강병규·유수경, 「언어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한 기점 표시 부치사의 의미 지도 연구 - 중국어 방언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71, 2017: 109-158.
- 박진호,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國語學) 63, 2012: 459-519.
- 박창영, 「한국어 공간사건의 언어화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안병길·김두식, 「언어속의 공간」, 『현대영미어문학』 26(2), 2008: 1-39.
- 염준, 「전치사 ‘在’와 조사 ‘에서, 에’의 대응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오선자, 「语序类型学视角下的汉韩介词联项对比」,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 71, 2020: 189-206.
- 오채환, 「空間의 客觀的 認識에 관한 研究」, 『哲學思想』 10-11, 1989: 135-181.
- 왕난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간관계의 부호화 대조분석: 인지언어학적 접근」

- 근」, 『언어과학연구』 81, 2017: 161-185.
- 윤평현,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2021.
- 이수련, 「장소 이론의 연구」, 『새얼語文論集』 3, 1987: 193-208.
- 임동훈,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국어학(國語學)』 82, 2017: 101-125.
- 임지룡,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20), 2000: 23-45.
- 정수진, 「국어 공간동사의 유형과 의미 양상」, 『어문학』 109, 2010: 63-97.
- 채희락,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현대문법연구』 15, 1999: 1-22.
- 최홍열·최윤, 「조사 ‘에’, ‘에서’의 공간의미 연구 -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통한 조사의 의미자질 설정 가능성 고찰」, 『용봉인문논총』 53, 2018: 253-275.
- 홍기선, 「이동동사와 장소명사 표시」, 『語學研究』 31(3), 1995: 461-480.
- 홍윤표, 「방향성 표시의 격(格)」, 『국어학(國語學)』 6, 1978: 111-132.
- 홍재성, 「이동동사와 기능동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 1997: 121-140.
- 劉寧生, 「漢語怎樣表達物體的空間關係」, 『中國語文』 03, 1994: 11-21.
- 阮氏麗娟, 「漢語方位詞及其類型學特征」, 華東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1.
- 儲澤祥, 「名詞的空間義及其對句法功能的影響」, 『語言研究』 2, 1997: 15.
- 齊沪揚, 『現代漢語空間問題研究』, 學林出版社, 1998.
- 齊滄揚, 『現代漢語現實空間的認知研究』, 商務印書館, 2014.
- 朱曉軍, 「空間範疇的認知語義研究」, 華東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8.
- 陳昌來, 『現代漢語語義平面問題研究』, 學林出版社, 2003.
- 崔希亮, 「空間關係的類型學研究」, 『漢語學習』, 01, 2002: 1-8.
- 崔希亮, 「漢語介詞與位移事件」,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04.
- 黃後男·孫英傑, 「現代漢語處所詞的格分析」, 『중국어연구』 82, 2020: 119-135.
- 柯潤蘭, 「介詞“向”的句法語義考察」, 北京語言文化大學 박사학위논문, 2003.
- Anderson, John M.(1971), The Grammar of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ker, Mark C.(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 Chan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ke, B. J.(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2006), Terminology of case,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1982), Space Grammar, Analysability, and the English Passive, Language 58, 22-80.
- Levinson, S. C. & Wilkins, D. P.(2006), Grammars of space: explorations in cognitive divers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2.
- Talmy, L.(1985), Lexicalization pattern: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Shopen,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II: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56-149.
-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f Expression of Kinetic Location Concept in Korean and Chinese : onomasiological approach

Ma Junmeng

This study aims to contrast the expression of kinetic location concept in Korean and Chinese, focusing on the onomasiological approac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classification of location is more detailed, and the concept of a location's tertiary classification is divided into static location and kinetic location depending on whether [location changes]. Among them, kinetic location are subdivided into source, path, and destination by [direction], and finally, they are sub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by adding the concept of coherence. Second, in Korean, the source is subdivided in the concept of coherent, the postposition '-eyse' is coherent, and the postposition '-lopteo' is incoherent. In Chinese, the source is handled by the preposition 'cong-' regardless of the concept of coherent. Third, in Korean, coherence destination is marked with a postposition '-ey', and the direction destination without a coherence implication is marked with a postposition '-lo'. In Chinese, the coherence destination is marked by the preposition 'dao-' and the destination direction is marked by 'xiang-'. Fourth, destination direction marker '-lo' is also used as path in Korean, and source marker 'cong-' is also used as path in Chinese. Finally, by expressing the methods of expressing as semantic maps in Korean and Chinese,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m was examined.

Key words : onomasiological approach, kinetic location, direction, coherence, semantic map, Korean, Chinese.

투고일: 2022. 7. 10. / 심사일: 2022. 7. 15.~ 2022. 8. 15. / 게재확정일: 2022. 8. 20.